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포기

#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뚝튀나'

### '반년째 제자리' 현대산업개발 재협상 무산되거나 인수대금 낮출 가능성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인수 '노딜'(No deal·인수 무산)이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수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위험부담이 큰 탓에 현산이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재협상 테이블이 열린다고 해도 현산이 인수대금을 낮추려 할 공산도 다분한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끝내 그룹 재건과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 금호그룹도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산과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지난달 15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한 이후 지금까지 재협상이 시작되지도 못한 상태다.

지난 2일 러시아를 끝으로 인수 선결 조건인 해외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 상승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선결 조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228억원에 인수하는 등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주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던

서 항공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됐고,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에 1조7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인수 작업에 압박을 넣었음에도 현산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협상에 들어가더라도 현산과 채권단의 입장차는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해 얻을 실익과 위험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재계에서는 현산이 2조5000억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항공업계에서 화물운송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객운송만 하는 계열사까지 통으로 매각할 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계열사와

의 분리 매각이나 채권단 관리 등의 '플랜 B'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하루빨리 매각이 이뤄져 매각대금 3228억원을 받아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할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소식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산이 재협상 조건으로 인수금액을 낮추게 되면 금호그룹이 받아야 할 매각대금 역시 기존 3228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호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빌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상황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현산이 당장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재협상이 무산될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인 뒤 매각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6.19 (-12.47)	↓ 금리(국고채 3년)	0.798 (-0.012)
↑ 코스닥	801.69 (+6.70)	↑ 환율(USD)	1197.30 (+2.00)

## 소값 오르니... 전남 사육두수 최다

### 한·육우 55만마리...농장은 326곳 줄어 1만6703곳

전남에서 사육하는 한·육우 마릿수가 1983년 이래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1년 전 보다 3.3%(1만7381마리) 늘어난 54만9967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마릿수는 1년 전 보다 2.7%(8만7000마리) 늘어난 333만마리다.

전남 사육 한·육우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83년 이래 모든 분기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 송아지 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번식우,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송아지 산지 가격은 마리당 333만9000원으로, 2019년 12월-2020년 2월 평균 가격(324만2000원) 보다 3% 올랐다.

사육 한·육우는 최대 규모였지만 농장 수는 지난해보다 326곳 줄어든 1만6703곳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경우는 전남지역 사육 마릿수가 전년보다 3.2%(3만5917마리) 늘어난 117만600마리로 나타났다. 돼지농가는 지난해 3~4분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돼지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2.0%(22만8000마리) 줄어들어 1108만 8000마리를 기록했다.

전남 돼지농장 수는 1년 전 보다 18개 늘어난 545개로, 전국 농장(6189개)의 8.8%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증가했지만 육계는 줄었다. 지난해 산란계 가운데 노계 도태가 증가하고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분기에 산란계 입식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지역 산란계는 1년 전 보다 8.9%(39만2644마리) 늘어난 478만2847마리로 집계됐다. 반면 육계는 2038만664마리로, 2.2%(-45만5840마리) 감소했다.

전남 오리는 476만7477마리로 1년 전 보다 4.7%(-23만3600마리) 줄었다. 종오리의 도태로 육용오리 생산이 줄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육계와 오리류의 경우 사육 마릿수가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장과 급식 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117만600마리로 나타났다. 돼지농가는 지난해 3~4분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중기 4곳 한전KDN 우수협력사 1년간 계약보증수수료 지원

광주·전남 4개 중소기업이 한전KDN 우수협력사로 선정돼 1년 동안 계약보증수수료를 지원받는다.

22일 한전KDN은 '2020년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11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협력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11개사 가운데 광주 ㈜사이버테크와 전남 ㈜아이티엔, ㈜오픈노드, ㈜지니텍이 포함됐다.

한전KDN은 우수협력사는 지난해보다 3곳이 더 늘었으며, 공모방식을 도입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협력사는 1년 동안 계약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부여 ▲우수협력사 직원 휴가비 지원 등을 받는다.

한전KDN은 올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제고, 동반성장 대출금리 지원, 투자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학생증 체크카드 경품 전달 (은행장 송중욱·왼쪽 네 번째)은 23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0 광주은행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 대상·금상 당첨자 3명을 초청해 노트북과 에어팟 등 상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학생증 체크카드를 만든 대학생 500명에 경품을 증정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전남 5월 주택담보대출 3968억...2008년 이래 최고

광주·전남 5월 주택담보대출이 관련 통계를 낸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5월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지역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광주 2946억원·전남 1022억원 등 3968억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 들어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1월 1271억원에 이어 2월 한 달만 감소(-3011억원)로 돌아선 뒤 3월 2361억원, 4월 2859억원, 5월 3968억원 등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지

난 5월 광주 2430억원·전남 1919억원 등 434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도 3개월째 오르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이 1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등은 전달에 비해 크게 올랐다.

5월 광주·전남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전달보다 2438억원 줄었다. 이는 2019년 2월(-2053억원) 이래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신탁회사 수신이 7586억원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전달에 비해 수신이 각각

1343억원, 2879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신탁 수신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누적 5168억원 늘었다. 신탁 수신 증가액은 지난 1월 1371억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낸 2004년 10월 이후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후 2월 1047억원, 3월 660억원, 4월 747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호금융은 1월 437억원 줄어든 뒤 연속적으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월 929억원, 3월 2739억원, 4월 2284억원, 5월 2879억원 등 올 들어 5개월 동안 8394억원 수신이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여름 휴가 준비하세요

#### 농촌 여행하면 할인 농림부 27일부터

정부가 농촌 여행자에게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농촌관광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지를 찾은 여행객에게 이용금액의 30%,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오는 27일부터 농협·신한·현대 3개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착순 6만명에 혜택을 준다.

할인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전국 1700여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를 방문해 행사 신청 카드사의 카드로 숙박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농·특산물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30%(최대 3만원)를 청구할인·캐시백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유통가 바캉스 할인전 '차박'·'홈캉스' 겨냥

이번 주말 광주·전남에 비 예보가 내렸지만 대형 유통가는 '차박' '홈캉스' 소비자를 겨냥한 캠핑용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광주·전남 7곳을 포함한 이마트는 오는 29일까지 물놀이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그늘막, 텐트, 타프 등을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삼겹살과 목심 100g을 20% 할인된 2704원에 내놓는다.

롯데이몰렛 광주월드점도 오는 29일까지 점포 1층 특별매장에서 '언택트(비대면) 여행'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진행한다. 차량용 콜라백과 탁상용 선풍기, 전기그릴 등이 대표 상품이며 '택앤락' 생활용기는 최대 70% 싸게 살 수 있다.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는 26일까지 제휴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러시아산 브라운 키크랩을 100g당 3000원대에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